

운송비 탓 육지보다 가격 최고 50% 비싸

## 전남 섬지역 생필품값 낮춘다

### 道, 쌀·식료품 등 농협 하나로마트 통해 공급 추진

운송비 때문에 육지보다 생필품 값이 비싼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남도가 유통 구조를 개선, 생필품 값 낮추기에 나섰다.

도내 섬지역에 공급되는 공산품 가격은 육지와 비슷하지만 쌀, 식료품, 채소, 과일 등 생필품은 판매 형태에 따라 가격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비싸 도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남도는 9일 생필품 가격이 육지보다 크게 비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 도내 섬

지역 25곳에서 운영중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 섬 주민들이 생필품을 육지와 비슷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농협과 협의를 거쳐 섬지역에서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를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하고, 이곳을 섬 지역 생필품 도·소매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섬지역 읍면에 위치한 하나로마트가 물류비용을 우선 부담, 육지 도매가격으로 인근 섬지역 소매점에 생필품을 공급해 섬 주민들이

육지와 같은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하나로마트는 쌀과 부식류, 과일, 채소, 육류 등 생필품 공급에 소요되는 주가 물류비를 자체에 청구하면 전남도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공산품과 기공식품의 경우 공동구매 방식 등을 통해 섬지역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

나 하나로마트에서 개별 구매해 판매하는 쌀, 과일, 채소 등은 섬까지의 물류비가 판매 가격에 포함돼 육지보다 20~30% 가량 높게 판매되고 있다.

운송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일반 소매점도 판매하는 모든 생필품의 가격

에 운송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육지보다 30~50%나 비싸 섬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어왔다.

전남도는 내년에 도·시·군비 17억 원을 지원해 도서지역에 운영중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생필품물류센터로 개선할 경우, 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주민의 속원인 생필품 가격안정을 이를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ae@kwangju.co.kr

###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 국토부 관련법 개정 추진

빠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조성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한 뒤에야 팔 수 있다.

개정안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전매를 허용하되 다만 전매할 때의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보다는 비싸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공, 입지 여건 안 좋지만 서비스는 ‘굿’

#### 광주·전남 입주민 만족도 조사

올해 광주·전남의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단지 입지여건과 단지 관리상태 등에 대한 불만이

타 시·도에 비해 큰 반면, 분양과 입주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지여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주거 만족도는 87.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89.2%)을 밀도는 것으로, 지역 입주민들의 주공아파트

에 대한 불만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입주민들의 단지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75.6%로, 전국 평균(83.6%)을 크게 밀쳤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9.4%로 가장 높았고, ▲경기(94.1%) ▲대구·경북(91.7%) ▲울산·경남(88.9%) ▲충북(85.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광주·전남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3.6%로, 평균(93.1%)을 웃돌았으며, 분양 및 입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4.9%로 높게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치, 이렇게 담그는 구나

광주 동림초등학교(교장 신정애) 4~6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7일 해남

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펼치고 있는 1교1촌 행사에 참여, 고구마 캐기와 인절미 만들기 등 체험을 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절반 가량 본심사 올라

#### 1차 매입분 중 4천68가구

49.4% 수준으로, 매입 가격은 총 4천 873억5천만원이다.

주택보증은 10일부터 2주간 본심사를 통해 최종 매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뒤 이달 말부터 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주택보증은 지난 3~5일 5천억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54개 건설사가 총 8천327 가구(사업장 62개)의 아파트 매입을 신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차 매입 추진 상황에 따라 다음달이나 내년 1월께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미분양 추가 매입에 들어간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지역 농식품 수출

#### 13개 선도 조직 육성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용주)는 우리 농식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성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품목은 파프리카·배·유자차·김치·딸기·새송이·백합·장미·단감·감귤 등 10가지 품목이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을 넘고 생산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13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



기아차 로체 청소년 원정대 ‘시동’

20명 대원들 서울서 결성식 갖고 힘찬 첫 걸음

기아차 로체 청소년 원정대가 히말리아 원정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8일 서울 압구정사옥에서 조남홍 기아차 사장(로체원정대 공동단장), 홍일식 단장·세계효문화부문총재, 강지원 후원회장(변호사) 등과 로체 청소년 원정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로체 청소년 원정대 결성식’을 가졌다.〈사진〉

원정대는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고취하기 위해 기아차가 지난 2006년부터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45명의 청소년

이 히말리아 원정을 다녀왔다. 기아차는 지난 8월 한달간 15~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정대를 모집했으며, 50대 1의 경쟁률을 뛰고 20명의 청소년 대원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도봉산·북한산 등지에서 기초 산행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네랄 히말리아 로체 베이스캠프(해발 5,200m)와 칼라파트(해발 5,545m) 등정길에 나서게 된다. 또 원정대원들은 히말리아 등정을 마친 후 네팔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전국 평균(89.2%)을 밀도는 것으로, 지역 입주민들의 주공아파트

에 대한 불만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입주민들의 단지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75.6%로, 전국 평균(83.6%)을 크게 밀쳤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9.4%로 가장 높았고, ▲경기(94.1%) ▲대구·경북(91.7%) ▲울산·경남(88.9%) ▲충북(85.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광주·전남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3.6%로, 평균(93.1%)을 웃돌았으며, 분양 및 입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4.9%로 높게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마이엘리시아**

생활관 판매 출판처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석을 50석 X 2회로

062) 671-1199

